

바보
 착한 것이 좋기는 좋아도
 바른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기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간다.
 온갖 악이 침범해 들어오지 못한다.
 -불본행경-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년
불교미술전시관
 신중시 모든 것
 책임 있게 드립니다.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주시 청동대불

자기를 바로 봅시다
免

2001년 국내에도 디지털 위성방송시대가 활짝 열린다. 방송위원회가 18일 위성방송사업자 신청을 마감, 한 달 이내에 사업자를 최종 선별할 방침이다. 이 때 "방송혁명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하지만 고가의 방송포로 현실은 어떤가. 위성방송은 커녕 영상 포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불교TV도 제대로 정상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

불교TV를 시청하는 불자들 중에는 수없이 반복되는 프로그램 때문에 TV켜기가 지겹다고 불평하는 이도 있다. 물론 불교TV는 동



방송포교
 위성방송시대 오전만 불교TV 정상화 '아직'

양의학 강좌 등 7~8개의 프로그램을 신규 제작하고 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차별 없는 편성과 비슷한 프로그램에 익숙해 하고 있다. 광고수입 의존도가 재정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교방송도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 광고 수입이 감소할지 모른다. 내년부터 바뀌는 방송광고제도 또한 불교방송 광고 수입의 변수로 작용해 높은 광고료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프로그램 제작비에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인력부족으로 인해 전파 포교매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 고가의 인터넷방송국은 6개 정도가 된다. 아직까지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몇 개 방송국은 인력부족과 재정 사정 등으로 인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시키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현대사회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대중매체인 방송은 많은 시간과 노력, 돈 등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방송매체를 제대로 포교에 이용한다면 빠른 시간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알릴 수 있는 효과가 크다. 이런 방송 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해 불자들을 비롯한 각 종단차원의 물질적·정신적인 지원과 함께 꾸준한 관심이 절실하다.

김주말 기자(jkim@buddhania.com)

불교서적의 모든 것! 역시야만
국내최대 인터넷불교서점 여사야문닷컴
www.yosiamun.com
 Tel: 02) 737-0695 Fax: 02) 737-0696

세계 첫 '디지털 한역대장경'

고려대장경 7년불사 '회향'... "한국불교 우수성 알리는 계기"

12월 6일 '고려대장경 2000' 발표-봉정식

팔만대장경(국보 제32호)이 디지털 대장경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는 12월 6일 오후 2시 을림리 컨벤션장에서 '고려대장경 2000 발표 및 봉정식'을 갖고 세계 첫 디지털 한역대장경인 '고려대장경 2000'을 선보인다.

2만여 후원불자의 원력이 담긴 '고려대장경 2000' CD롬은 영인본까지 포함된 전문가용(15장)과 용어사전과 해제를 담은 일반용(3장) 등 두 종류. 일자(一字)·용어·색인·목록 등 4종의 '검색'이 가능할 뿐 아니라, 1천514종의 경전을 해설한 '해제본'과 이체자 2만9천 478자를 수록한 '이체자전' 등도 수록했다.

또한 1만여 개의 불교 용어를 해설해 놓은 '불교용어 사전'과 대장경의 이체자를 정자로 입력, 어떤 문서편집기로도 열람·편집

할 수 있는 '유니코드 텍스트본' 등 다양한 활용 기능을 갖췄다. 이에 따라 '고려대장경 2000'은 누구나 손쉽게 고려대장경을 비교·연구할 수 있는 토대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의 학문적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동안 고려대장경은 가장 정확한 관본으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용의 편리성 때문에 일본의 신수대장경이나 대만의 불교대장경 등을 주요 텍스트로 선호해 왔다.

고려대장경측은 1288년 절의 '고려대장경 2000'을 국·공립 대학 도서관, 정부·산·학·연, 전국의 사찰과 강원, 후원 불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해 대장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킬 방침이다.

6일 열리는 봉정식에서는 백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원장-이인자 교수 부원장-왕선자씨

불교여성개발원이 27일 조직 체계와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여성불자들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 운동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창립법회에 앞서 18일 한국불교총연합회 회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당원직 이사장에는 포교원장 정연스님, 원장에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이인자교수(경기대), 부원장에 왕선자(부산여성불자회 회장)씨를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원장 인터뷰 4면)

불교여성개발원은 조계종단의 중진급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이뤄진 고문과 회고 의결 기구인 이사회, 상임위원회와 상임위 산하에 연구·교육, 가정, 대외협력, 복지, 인권 등 5개 위원회, 특별자문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앞으로 △여성불교학 연구조사 △여성 리더십 개발 교육 △조계사내 아동보육시설 설치 △여성불교 관련 자료발간 △종교개혁이시구축 사업 등을 벌일 계획이다.

김주말 기자

태고종 19대 총무원장 종연스님 선출

53표중 27표 얻어

23일 순천 선암사에서 열린 태고종 제79회 정기중앙총회에서 종연스님(성주암 회주)이 총회의인 전원(53명)이 참석한 결선 투표에서 27표를 획득, 26표를 얻은 운산스님(재단법인 태고원 이사장)을 누르고 제19대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는 인곡스님, 운산스님, 종연스님 등 세 스님이 구두 추천받아 입후보, 첫 투표에서 운산스님이 24표, 종연스님이 19표, 인곡스님이 10표를 획득했다. 세 후보 중 누구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2차 투표로 들어가 종연스님이 1표차로 총무원장에 선출됐다.

종연스님은 선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부하는 종단,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 종단 중도를 조성해 나가고, 화합하고 신뢰받는 행진으로 종도들이 종단을 믿고 따르도록 분위



기를 쇠신시켜 종단의 발전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및 해설 3면)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태고보우스님 탄신 70주년 사업, 남북불교교류 사업 등 2001년도 종단 사업계획과 예산 15억 6천500만원, 선암사 예산 6억 1천600만원을 통과시켰다.

선암사=이경숙 기자 (gslee@buddhania.com) 오종욱 기자

WFB·WFBY 총회 태국 방콕서 12월 5일

WFB(세계불교도우회) 제21차 총회와 WFBY(세계불교교우회청년회) 제12차 총회가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다.

WFB 창설 50주년을 맞아 WFB의 새로운 화표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주목받는 이번 대회에는 주최국인 태국 등 모두 50여 개국에서 3천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재산현황 자료 요청 조사특위, 동국학원에

조계종 중앙총회에서 구성한 동국학원 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는 22일 총회사무처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동국학원에 법인 재산 현황, 이사회 회의록(1997년도 1월~2000년 11월 현재), 임직원 임용 현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또 총림학교관리위원회에도 총림학교관리위원회 활동 보고를 12월 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동국학원특위는 자료 및 보고 내용을 검토한 후 향후 계획 및 일정을 결정키로 하고, 2차 회의를 12월 12일 열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가는 가을 오는 겨울... 차마에 걸린 매주의 알지 바른 곳에서 골게 맞들어 가는 시래기와 무말랭이, 적은 것만으로도 부지가 된 듯한 마을의 풍경을 느끼게 하는 운문사의 겨울채비. (청도 운문사=고영배 기자)

제 6회 신행수기 공모

교계의 정량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6회째를 맞습니다. 가을에 담아두어 온 감동있는 신행수기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부터 총회를 총무원장이 추가해 신행수기 공모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후정인 상금이 준비되어 있으며, 입상작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에 게재되오니 이번 공모에 불자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원고지 30매... 마감 12월16일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몸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이내
 △마감: 2000년 12월 16일
 △당선작 발표: 2001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공표처: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02)722-4162

△시상내용
 ○대상(유미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우수상(분사 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특별상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현대종 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관공종 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총화종 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대원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중앙승가대학교

제 3대 총장 徐宗梵 스님 취임법회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가피와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중앙승가대학교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금번 본 대학은 제3대 총장으로 불교학과 교수이신 서종범스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계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취임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두루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아울러 우리대학이 미래의 한국불교 나란다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앙망합니다.

□ 일 시 : 불기 2544년(2000) 12월 6일(음 11월 11일) 오전 11시
 □ 장 소 : 중앙승가대학교 정진관 대강당
 □ 문의전화 :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6번지
 TEL (02) 925-5508 / FAX (02) 928-4302

中央僧伽大學校 제 3대 총장 취임법회 준비위원회 합장